무허가축사 적법화 순조

임실군 347호 농가 중 79호 완료 · 124호 추진중

내년 3월 24일까지 신청 ·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

임실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맞춰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22일부터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관내 축사들이 기간내 적법화 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해온 모든 축산농가는 이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어서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이해를 돕고 홍보차원의 농가별 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 안내 등을 실시 중이다.

또한 건축 · 환경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전담공무원도 지정해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적법화 관련 지도 및 홍보, 이행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읍면 순회교육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지난 달부터 무허가 축사 읍 · 면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총 12회에 걸쳐 읍 · 면을 돌며 교육을 실시중이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 적법화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읍 · 면 순회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집무실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판을 설치해 축사 적법화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역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수시로 주문하고 있다.

현재 임실군 내의 879호 축산농가 중 무허가 농가는 347호로 이중 79농가가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124농가는 추진 중에 있다.

심 군수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축사가 적법화 절차를 거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시설사업소가 명품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남원시' 에서

광한루원 · 항공우주천문대 등

학교단체 방문 증가 추세

다양한 이색프로그램 각광

남원 시설사업소가 명품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남원시 현장체험 대표 시설로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항공우주천문대 등이 학생들에게 인기이며 매해 학교단체 방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타 지역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천문대가 관광단지에 위치해 있어 남원을 찾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주요시설은 600mm대형망원경이 있는 주관측실과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4D 천체투영관, 항공시뮬레이션 체험관, 그리고 천문우주, 항공과학관련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춘향과 몽룡의 일편단심으로 채워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가 인근에 함께 있어 '낮에는 항공체험, 밤에는 별을 보는' 천문대 고유의 기능에 판소리 마당극 공연과 박물관 관람 및 전통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체험활동형 천문대로 개관이래 현재까지 약 20만명 정도가 방문 하고 있다.

남원시 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올 하반기도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모두 끝냈다"며 "남원현장체험학습이 명품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친환경 농업 중심지 도약 발돋움

100억원 투입 연구센터 완공

유기농업기술 개발 등 수행

지역 경쟁력 강화 청신호

순창군은 유등면 건곡리 1425번지 일원 8,300㎡부지에 2층 건물 3동이 들어서는 친환경연구센터를 최근 완공했다.

순창군이 친환경농업 성공을 이끌 핵심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유등면 건곡리 1425번지 일원 8,300㎡부지에 2층 건물 3동이 들어서는 친환경연구센터를 최근 완공했다고 밝혔다. 들어선 건물은 연구센터, 종합연구실용화센터, 연구온실 이다.

지난 2015년 착공해 올해까지 총 100억원이 투자된 대형 사업이다.

군은 이번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으로 지난 2016년 완공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00억 사업과 함께 순창을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획기적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군은 이미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생명농업과를 신설하고 친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이번에 완공된 친환경연구센터는 친환경농업의 핵심인 유기농업기술을 개발하고 ICT 융복합 농업기술 등 농민들의 교육을 통해 기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 저비용 유기농자재 생산과 공급 등의 기능을 수행해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은 물론 농산물 및 농업환경 안전관리 분석기관 역할도 담당한다. 농업인 현장연구원제도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인의 참여방법도 열어 놓을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유기농자재, 토착미생물, BM 활성수 등을 생산하는 플랜트가 구축되는 종합연구실용화센터, 작물들의 실증재배가 진행될 연구온실 등은 핵심 시설이다. 군은 내부 공사 및 자재구입을 마무리 하고 9월경에는 친환경연구센터에서 공식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순창군에는 특히 큰 의미가 있다. 순창군은 황숙주 군수 취임 이후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합 농업 경쟁력 강화를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우선 친환경농업의 양적 성장을 위해 인증 면적 확대를 추진해 현재 913호 농가에서 1,293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보했다. 도내 1위 압도적 면적이다. 또 친환경 쌀 제주도 급식 쌀 진출 과 유통조직망 확대, 유기농업 특구 등 질적 성장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군은 이런 흐름에서 친환경연구센터의 공식 업무를 통해 친환경농업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환경오염 주범 폐농약병 수거함에 '쏙'

순창군 17개마을 수거함 설치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 앞장

순창 인계면이 폐농약병과 폐농약봉지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17개 마을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해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인계면은 논밭에 방치된 폐농약병이 토양과 하천에 흘러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비 5백만원을 들여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설치장소는 마을회관, 작업장 등 농업인들이 많이 모이고 접근 및 관리가 용이한 곳이다.

수거된 폐농약병을 모으면 1kg당 플라스틱병 기준 1,600원의 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인계면은 이번 조치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의 분리 배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클린순창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인도 여행시 장티푸스 감염 주의

남원시보건소가 인도 북서부지역을 방문한 단체 여행객 25명 중 5명에서 장티푸스가 확인됨에 따라, 여행후 발열, 오한,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장티푸스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장티푸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 여행 전 여행지역, 여행기간 등을 의료진과 상담한 후 여행 2주 전까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시에는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익혀먹기, 과일 ·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등 안전한 음식섭취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등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장티푸스 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아빠와 함께 축구관람 데이트

순창군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최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빠와 데이트'란 주제로 축구 관람을 실시해 아이들과 아빠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날 행사에는 드림스타트 14가정 40여명이 참여 했으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홈경기 관람과 함께 경기장에서 제공한 치킨과 음료수 등 먹거리도 즐기면서 아빠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아빠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신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선효 주민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암 예방 교육 호응

임실군은 22일 '암 이야기'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보건의료원은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강진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지역여성 50여명을 대상으로 암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정영숙 전북대병원 영양사가 강사로 나서 건강에 좋은 식생활 방법과 잡곡위주의 음식 섭취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각종 암 발병 원인인 잘못된 생활습관을 알아보고 예방 수칙 등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암 예방을 위해 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력해 12개 읍 · 면 순회 이동 암검진 및 성인병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